

책은 다르다는데...

이경훈 본지 편집위원

“책은 다르다”(Books are different). 이 말은 영국 출판계에서 하나의 약속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 2차대전 중에 문제된 영업세 반대운동에 그 유래가 있다. 즉 1940년 영업세 도입에 즈음하여, 그 면제를 요구하고 투쟁한 출판계가 주장한 슬로건이 ‘책은 다르다’이며, 보통 상품과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당시 영국정부는 이같은 출판계의 주장을 인정하고 책을 영업세 대상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말은 그 이후 하나의 상징어가 되다시피 한다.

그로부터 22년 뒤, 영국 출판계는 다시 ‘책은 다르다’라는 말을 공적으로 인정받는데 성공한 다. 즉 制限的 慣行裁判에서 승리한 것이다. 영국

은 1957년 출판업자 상호간에 체결한 正價本協定(올바른 가격으로 출판된 책은 그 가격 이하로는 독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협정)이 소위 제한적 거래관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재판에서 정가본제도의 필요를 인정한 판결을 얻어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일본에서는 ‘再販價格維持制度’라 하여 실시하고 있다.

前記 재판과정에서 영국출판협회측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록은 구구절절 너무나 당연했다.

“책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商標品인 것이다. 가령 어떤 책 한권을 택했을 때 그것은 모든 다른 한권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할인

경쟁에서 아주 약한 물건이다.” 이와 함께 이 변호인은 정가본 협정이 무너지면 책의 고유의 기능과 존재는 파소평가되고 책의 염가판매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면서, 그 결과는 ① 소매점(책방)은 망하고 줄어든다. ② 초판부수가 감소되어 책값은 큰 폭으로 인상된다. ③ 출판종수가 스스로 격감한다. ④ 필요한 책이 책방에 진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90년도 들어 13개 중앙일간지는 물론 지방까지도 전면 내지 5단통 이상의 대대적인 도서염가판매 광고가 연일 실리고 있다.

정말 가관이다. 이처럼 책의 염가판매광고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아마 과문의 탓일지는 몰라도 세계 어느나라에도 정가와 할인한 염가를 2중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같은 광고가 출판문화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든다는 것을 그 광고를 낸 출판업자는 왜 모르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출판저널

통권 제55호/1990년 2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鐵柱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煥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潘燮煥 李權雨 洪賢淑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全惠敬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崔兌源 李義天 崔炳天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제)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전산사식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瑛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慎鐘廈 安秉永
安輝游 吳光洙 劉戰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瑋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勝羽 李元觀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映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賢 韓勝憲(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증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90년2월2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57호(90년3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주)시사영어사에서 펴낸 「엘리트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 및 중국의 고전, 역사 등과 관련된 낱말짜맞추기로 출제했습니다. 다음의 가로 및 세로 열쇠를 읽고 빈칸에 맞는 인명이나 작품명 등을 써넣어 주십시오.

가로열쇠

①박지원의 燕行錄 ④이규보의 문집 ⑦「莊子」內篇의 제1장 ⑨조선조 초기에 발생한 시가의 형식. 비교적 장편으로 송강이 유명하다. ⑪제주名妓 애랑의 땀에 넘어간 배선달 ⑬고려 때 박인량이 지었다는 설화집. 책은 전하지 않는다. ⑮조선 고종때 판소리를 집대성한 이. 호는 桐里. ⑰정철이 지은 사설시조. 권주가. ⑲중국 先秦 이후 宋까지의 名文을 가려 뽑은 책. 편자는 미상.

세로열쇠

②일본의 문물제도·풍속을 노래한 장편기행가사. 金仁謙作. ③율곡 ④서거정이 엮은 우리나라 名文選 ⑤술을 의인화한 이규보의 가전체 설화. ⑥楚의 屈原이 지은 賦. 望君의 시름을 읊은 대서사시. ⑧「삼국지연의」의 한 인물. 字는 현덕. ⑩사마천이 지은 중국사서. ⑪황해도지역의 민속극의 하나. 이은관의 특기. ⑬조선 인조 때의 문장가. 「계곡만필」을 지었다. ⑮낙선재 소장도서. 국문학연

구의 자료적 보고. ⑭고려 이후 조선 초까지의 가요·악장·경기체가를 수록한 歌集. ⑰「구운몽」의 남주인공. ⑱唐의 시인. 연애시로 유명했으며 소설 「앵앵전」을 남겼다. ⑲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중국 後漢때 사람. ⑳고구려 건국시조 동명왕의 이름.

제 53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대해주신 독자에게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53호(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⑮								⑰	
									⑲
				⑳					㉑

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86통, 이중 정답자는 75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홍길동전	어한
루	징부중
격몽요결	비변사등록
로	록시
계원필경	신사임당
야	시
화왕계	조침문
서유기	림의향
거	유제망매가
정약용	사문

담청자

반경진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258-12)
고안조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한국네슬레 자금부)
안현숙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86-5)
나지애 (전남 목포시 대성2동 124)
김형원 (경북 김천시 성내동 정휘맨션 다동 505호)